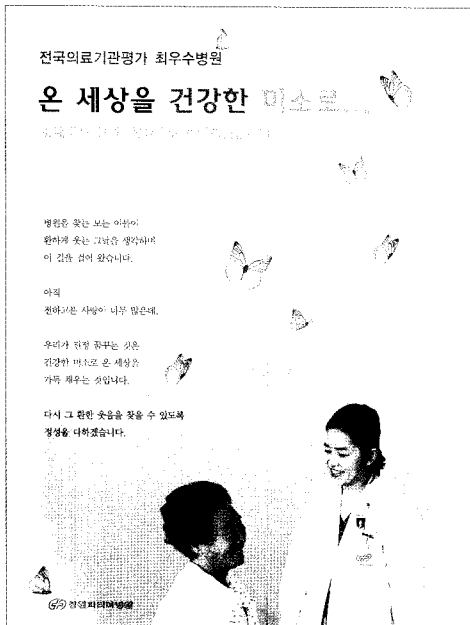


온 세상을 건강한 미소로...

창원파티마병원

지난 6.2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에 의하면 창원파티마병원은 2005년에 이어 2008년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의료기관평가에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의료서비스 및 환자만족도 등 20개 부문 중 19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창원파티마병원은 1969년 마산시 대성동에서 4개 진료과, 10개 병상의 마산파티마병원에서 출발하여 2002년 창원으로 이전, 진료를 시작한 이래 응급환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중증외상 및 응급보철한 특성화후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지역최초로 개설하였고, 전신 암 조기진단장비인 PET-CT 등 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온생명 Care 캠페인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찾아가는 시민강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는 창원파트임병원은 22개 진료과 80여명의 전문의가 질환별 전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에서는 4명의 응급의학전문의를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중증응급환자가 병원 도착 시 응급의학전문, 외상전문, 뇌질환 전문의의 협진이 이루어지는 중증외상센터와 응급뇌질환센터도 개설되어 중증응급질환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직원 교육을 통해 조직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

고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 직능별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실력있고 신뢰 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3~2006년, 2007~2010년 연속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첨단진료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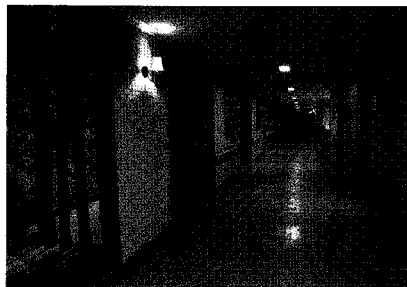
창원파트임병원은 2002년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전 개원하면서 첨단의료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지역사회에서 '최신형 의료장비를 보유한 병원'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최근에는 전신 암 조기 진단 장비인 PET-CT를 비롯하여 최신형 감마카메라, 디지털 맘모그래피 등을 보강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루 갖추었다. 이와 더불어 창원 이전 당시 구축한 OCS(전자처방전달시스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DUR(약물안전사용시스템)을 Web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고, 2008년에는 영상 EMR(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여, 영상 EMR, OCS, PACS가 서로 연계됨으로서 고객의 대기시간 단축과 진료효율성을 높였다.





최초 호스피스 병동 조성

창원파티마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병실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 500병상 규모로 병원 증축을 완료하였고 마산·창원·진해 지역 최초로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하여 전문 의료진과 임종실, 기도실, 야외정원 등을 갖추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전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래 진료실의 재배치를 통해 고객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각 진료실과 대기 간 환경을 개선하여 병원을 찾는 고객이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Green & Clean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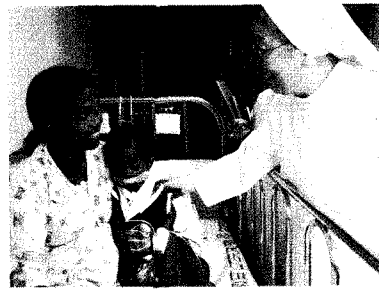
창원파티마병원은 설계 당시부터 환자 중심과 동시에 각종 자동화설비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료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냉방설비는 빙축열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하여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울타리 대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병원을 찾는 이들이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지구 생태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지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온생명 Care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변 환경 가꾸기, 잔반 줄이기, 안 쓰는 물품 기증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료

창원시는 1974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대규모 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다. 창원파티마병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상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환자 도착으로부터 최단 시간 내 치료 방침을 결정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창원에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생활 하기 위한 지원활동으로 '다사랑 나눔 캠페인' 전개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통역 서비스, 건강검진, 출산비 및 진료비 지원, 한국어 교육 및 산모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료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원들의 정성으로 '파티마사랑기금(Sharing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창원파티마병원은 개원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을 계속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 대학병원 진입, KTX 개통, 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병원을 찾는 고객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념에 충실하며 병든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돌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